

공보다 원만한 화합잔치 한마당



천태종 중앙청년회 주관으로 제31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배구대회가 9월 5일 단양공설 운동장에서 열렸다. 금산 삼덕사와 포항 황해사의 배구경기 모습.

“하나, 둘, 셋, 와아~”
기쁨과 아쉬움의 탄성이 교차한 충북 단양군 공설운동장. 9월 5일 이곳에서 숨막히는 승부와 화려한 응원이 펼쳐졌다.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남정락) 주관으로 열린 제31회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가 그것.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 대구 대성사, 인천 황룡사, 광주 금광사, 대전 광수사 등 전국 50여 사찰에서 참가한 2만여 명의 불자들이 소속사찰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배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400m 이어달리기, 족구 등 5개 종목으로 나누어 운동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경기에는 신경을 풀어 모으면서도 잠시도 쉬지 않는 응원으로 운동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운동장을 누비는 선수들의 땀방울 하나하나에 담긴 천태종 불자들의 소망과 기대는 뜨거운 응원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소속사찰이 경기에서 지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더욱 열렬한 박수로 선수들을 격려하는 성숙한 응원문화를 보여줬다. 해를 거듭할수록 승부를 떠나 화합의 잔치 한마당으로 승화된 것이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쉴 틈 없이 진행된 이날 배구대회에서 자매결연 학교인 서울 문일고 배구팀을 대표로 내세운 강릉 삼개사가 우승했다. 삼개사와의 결승에서 아깝게 패한 마산 삼학사(속속)

로 운동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운동장을 누비는 선수들의 땀방울 하나하나에 담긴 천태종 불자들의 소망과 기대는 뜨거운 응원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소속사찰이 경기에서 지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더욱 열렬한 박수로 선수들을 격려하는 성숙한 응원문화를 보여줬다. 해를 거듭할수록 승부를 떠나 화합의 잔치 한마당으로 승화된 것이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쉴 틈 없이 진행된 이날 배구대회에서 자매결연 학교인 서울 문일고 배구팀을 대표로 내세운 강릉 삼개사가 우승했다. 삼개사와의 결승에서 아깝게 패한 마산 삼학사(속속)

50여 사찰 2만여 불자 참가 강릉 삼개사 우승...응원도 불거리

고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줄다리기는 단양 영춘지회, 단체줄넘기는 창원 원흥사, 400m 이어달리기와 족구는 철곡 삼명사가 각각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운동장 가운데서 펼쳐지는 운동경기와 달리 관망석에서 경쟁을 벌인 응원상 1등에는 카드섹션과 인형극, 마당극 등을 선보인 춘천 삼운사가 선정됐다. 서울 관문사와 부산 삼광사, 대구 대성사에게는 2등상이 주어졌다. 안거기도를 잠시 접어두고 응원을 위해 새벽 3시에 출발했다는 삼운사 신도 고춘희 보살(66)은 “오늘의 진정한 승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도구를 바꿔가며 열심히 땀 흘린 천태종의 모든 불자들”이라며 흥겨워했다.

단양=박봉영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안산 보문선원

복지불사가 포교의 코드

“우리절에서는 어린이와 어른들을 부처님처럼 생각합니다” 경기도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은 정말 어린이 포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10년동안 일선에서 어린이 포교를 위해 지도법사로 활동한 것도 모자라 4년전 천진 불심들을 위해 안산에 동지를 틀었다.

“요즘 같이 경제가 힘들 때는 도심 포교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적지않게 들어가는 유지비 때문에 몇 년 해 보고 모두들 포교당 문을 많이 닫지요. 특히 이곳 안산 지역은 기독교 세가 강한 지역이라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 마다 만나는 새싹 불자의 눈

“돌보기 나눠주기 캠페인”이다. 안산시 22개동을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한달에 한 번씩 들며 3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3백명의 어르신들에게 돌보기를 나눠 준다. 이 운동은 시작한지 벌써 7년이나 됐다.

“눈이 침침해 신문이나 TV보기도 힘들어 하신 분들이 시력 검안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돌보기를 선물하면 너무 좋아 하세요. 세상이 환하게 보인다고 기뻐하시면서 합장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면 제 눈이 시력을 되찾은 것처럼 환희심을 느낍니다.”

이외에도 스님은 요즘 또 하나의 포교 봉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안산 불자의 눈

전남 지도 스님 초청 어린이법회 열려

지역 소외계층 위한 사회활동 열성

지역의 특성을 보 면 다시 힘 을 얻지요.” 보림 스 님의 어린이 포교에 대한 열력은 생각 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좁은 포교당에 어린이 법당을 따로 만들고 피아노와 4대의 컴퓨터를 갖춰 놓았다. 벽에는 초등학교 교실처럼 범우들의 동정란 과 알림게시판 등을 예쁘게 꾸며 놓았다.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와서 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 연제든지 어린이들이 와서 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어린이 법회의 지도도 포교 전문인 무진 스님 (동국대 학인)을 서울에서 초청해 봉 행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보림 스님의 도심 포교는 비단 어린 이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성상 외국 인 노동자 들이 많은 데 이들의 자녀들이 마땅히 교육받을 시설이 미비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보림 스님은 ‘외국인 영어마을’과 ‘대안학교’ 창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적을 초월해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가르치고 동시에 세계 각국의 어린이 들에게 부 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취지다.

“도심 포교당이 포교의 정체성을 찾고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 포 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복지 불사 10년에 대한 원력을 세워 안산 지역이 부처님의 자비법 음 속에 불국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될 생각입니다.” (031)401-2540 김주열 기자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돌보기를 나눠주고 있다.

호국영령 기리며孝心 새겼다

청주성탈환 412주년 추모제 청주불교살업인회, 경로잔치

9월 6일 오전 청주 중앙공원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청주성을 탈환한 날을 기념하는 ‘청주성 탈환 412주년 추모대제’가 열렸다. 이 추모대제는 의병장 영구대사, 의병장 조현 장군과 박춘무 장군, 그리고 무명의 의승 병과 의병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청주불교살업인회(회장 윤기봉)가 매년 치러온 행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900여 명 가운데 어르신 700여 명. 원래 중앙공원이 어르신들의 쉼터이기도 하지만 추모제 뒤에 경로잔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행사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리했다. 사실 이날 행사의 포인트는 바로 경로잔치.

추모제가 끝나자 이날 점심공양을 책임진 광덕사(주지 일봉) 관음회 회원들의 손길이 바빠졌고, 국수와 떡을 먹기 위해 어르신들의 긴 행렬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경로잔치에서 국수를 먹고있는 어르신들의 모습.

“고맙지 뭐. 이렇게 노인을 대접하느라 고생이죠.”

가톨릭 신자라는 김중환 할아버지(70·청원군 남이면)는 절에서 점심까지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연신 웃음을 지었다. 그 옆에 있던 기독교 신자라는 김용희 할머니(78·청주시 탑동) 역시 “불교신자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 복 받을 거여”라며 국수를 휘휘 저어 맛있게 먹었다.

진천 대흥사 신도라는 임택심화 보살(77·청주시 탑동)은 “친구들이랑 오늘 처음 왔어, 절에서 점심도 주고, 노래도 한다고 해서...

서... 불교신자들이 좋은 일 많이 하니가 기분이 좋아요”라며 같이 온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국수와 떡, 과일과 음료. 차린 것은 이것이 전부지만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진수성찬인 모양이다. 아마도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인 듯 했다.

점심공양이 끝나갈 무렵 청주 민속공연단인 ‘우리가락 좋으씨고’ 공연이 이어지자 몇몇 어르신들이 흥에 겨운 듯 무대 앞으로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춘다.

행사를 주관한 청주불교살업인회의 이대성 사무국장은 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싸 드려라와 와이셔츠가 다 젖었다.

“할머니, 너무 욕심내시면 안돼요, 다른 분들도 드셔야죠.” 빙그레 웃으며 건네는 한마디에 몇몇 어르신들이 멋쩍어 한다.

“하지만 이내 손을 맞잡고 “건강하세요” “고생했지”라며 인사를 나눈다.

간단한 행사였지만 스님과 불자들 그리고 시민과 어르신들은 잠시나마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중앙공원의 하루는 그렇게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채워졌다.

청주=한영우 기자

“개인·직장 발전을 위하여” 전남경불회, 대흥사서 토론회

전남경불교회(회장 이병욱·장흥경찰서장) 산하 26개 경찰서 불자회원 120여명은 9월 4-5일 양일간 해남 대흥사에서 합동 수련회를 갖고 ‘경찰불교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경찰불교회 목적을 ‘신행활동을 통한 개인과 직장발전’에 두고 ‘포교와 사회봉사 실천’을 바라는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정기법회, 사찰순례 등 참 △불교서적, 불교간행물 구독 △소외된 이웃 위한 봉사활동 전개 △직장내 홍보용 책자 비치 △불자회원 확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이어 경찰불자들은 새벽술집 견기, 북미특암 마에부처님 친견, 참선, 천운스님 초청법회를 갖고 회향했다.

회향사에서 이병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지역 경찰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 행을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신심을 높이고 불자경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기위해 매년 합동산사수련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영 기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연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윤.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전원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대학장 활안(한정섭) · 대학원장 호암(김정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2004년 8월 31일 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한국 불교 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